

<https://doi.org/10.22643/JRMP.2019.5.2.69>

International Symposium Theranostics/Precision Oncology in Bad Berka Germany

Jae Min Jeong^{1,2,3*}

¹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Institute of Radiatio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²Cancer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³Department of Radiation Applie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Theranostics/Precision Oncology가 올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독일의 Bad Berka에서 열렸다. 이것은 theranostics의 선구자인 Richard Baum 교수가 theranostics 치료를 시작한지 2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발표자와 좌장을 선별 초청하여 실시한 국제 심포지엄이었다. 필자는 여기에 좌장으로 초대되어 참석하였다.

Richard Baum 교수는 Bad Berka에서 ⁹⁰Y-DOTATOC으로 theranostics를 시작하고 10여년이 지난 다음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2011년 6월에 제1차 Theranostics World Congress (TWC)를 Bad Berka에서 개최하였다. 필자는 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는데 당시의 심포지엄 이름은 World Congress on Gallium-68 and Peptide Receptor Radionuclide Therapy (PRRT)라고 복잡한 이름으로 불렸다. 제2차 대회는 인도의 Chandigarh, 3차 대회는 미국의 Baltimore, 4차 대회는 호주의 Melbourne, 그리고 최근의 5차 대회는 올해 3월에 한국의 제주에서

열렸다. 제 6차 대회는 2021년 3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칠레의 Santiago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번에 Bad Berka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정규 TWC와는 관계 없이 Richard Baum 교수가 개인적으로 개최한 것이었다.

내가 Richard Baum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Richard Baum은 IAEA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방사성동위원소를 항체에 표지하여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교육을 하는 강사로 왔었다. 그 때 항체를 ^{99m}Tc으로 표지한 다음 정도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을 매우 열심히 강의했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약간 골려줄 심산으로 표지된 항체와 콜로이드로 된 ^{99m}Tc을 어떻게 분리하느냐를 질문했었는데, 사실 이는 매우 까다로워 알부민 코팅한 종이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할 수는 있지만 기술이 필요하고 재연성이 좀 낮아서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Richard Baum은 이러한 조건으로 표지하면 콜로이드가 생기지 않는다고 공색한

Received: December 28, 2019

Corresponding Author : Jae Min Jeong, Ph.D.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ngno Jongno-gu, Seoul 110-744 Korea

Tel: +82-2-2072-3805, Fax: +82-2-745-76, E-mail: jmjng@snu.ac.kr

Copyright©2019 The 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

답변을 하고 넘어갔었다. 지금도 ^{99m}Tc 표지 화합물 관련 논문을 투고하면 심사위원 중에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옛날 생각이 난다.

이번 심포지엄의 첫 강의를 Richard Baum이 theranostics의 초기 시작부터 최근의 동향까지 총망라하여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보면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나라의 암의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는 과학자와 핵의학 전공의들 그리고 식약처의 공무원들이 들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 내용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18년 12월 6일자 Nature Biotechnology에 난 뉴스를 인용한 것으로서 “Radioactive drugs emerge from the shadows to storm the market”이라는 내용이였다. 방사성의약품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 시장에 폭풍을 몰고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을 만들어낸 주역을 Richard Baum 교수가 한 것이다. 그 뒤로도 많은 발표자들이 뛰어난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바야흐로 세계는 theranostics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았다. 세계는 뛰어 가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에 묶여 겨우 겨우 한 걸음씩 힘들게 떼어 놓고 있다.

점심시간에 한번은 나 혼자 앉아 있는 식탁에 방사성 동위원소표지 항체로 진단과 치료를 시작한 선구자 중 한 사람인 Steven Larson과 PSMA로 유명한 Martin Pomper가 와서 앉았다. 처음에는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왔군 하고 생각했는데 잠깐 생각해보니 두 사람 다 굉장한 선구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나는 미국 핵의학 의사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용감했는데 요새는 FDA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맞장구 치면서 옛날에

Henry Wagner 같은 사람은 대단했다며 회상을 했다.

사실 독일의 Richard Baum이 이렇게 세계의 theranostics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중요했겠지만, 규제를 적당한 수준에서 할 줄 아는 독일 정부의 능력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